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3일)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진각종 총인 영향력 축소 "통리원장 추천권 없앨 듯"

[분석] 총인 사퇴 진각종, 제도변화 방안 모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들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진각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종단 내부서 재발 방지를 위해 총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현재 총인이 갖는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제한해 종무행정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회정 정사의 사퇴 이후 새 총인을 2개월 안에 선출해야 하는 진각종이 어떤 제도변화를 이끌어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진각종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종단은 10여 년 전 전 · 현직 통리원장의 갈등으로 인해 인의회(원로회의)에 부여된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는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인의회 당연직 의장인 총인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인사권 등에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론의 발단은 회정 총인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후 종의회에 통리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진각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론보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인이 통리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통리원장 후보 추천권이 있는 총인의 영향력 행사가 결국 통리원장에게 작용하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은 원래 종의회 고유 권한이었다. 하지만 2007년 강원도 홍천 토지 매각과 관련해 당시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前통리원장 효암 정사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때 종의회도 파벌이 나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자, 통리원장 후보를 종단의 원로조직인 인의회가 추천하도록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현재 진각종 종의회는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통리원장 선출제도를 종의회 고유권한으로 되돌리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감찰 · 재판기능을 동시에 갖는 현정원에 대해서도 재판권만 부여하고, 감찰권을 통리원이 행사하는 종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회정 총인의 친동생이 현정원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각종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부정한 마음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 앞선 논란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승들이 권력자 앞에 복지부동 했기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변화를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종단의 종정 · 총인은 종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다. 하지만 성문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정치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회정 총인의 사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 총인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총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군은 서너 명으로 압축된다. 후보로는 前통리원장 혜정 정사, 前종의회의장 혜명 정사, 前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총인은 통리원장 · 교육원장 · 현정원장 · 종의회의장과 인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총인추대위가 선출한다. 하지만 이 역시 종의회에서 추대하는 방안과 모든 정사 · 전수가 참여하는 스승총회를 통해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진각종 통리원장 선출은 종의회서 이뤄지며, 선거권자인 종의회의원 선출은 스승총회서 이뤄진다.

한편 회정 정사는 종단기관지 밀교신문 공고를 통해 5월 31일자로 총인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교화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종사(宗事)의 부담을 덜어낸다"면서 "작금 종단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법문(法門)을 다스리기에는 주어진 건강이 허락지 않아 총인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정 정사는 이어 "참회공부 실천문제는 종지와 같다고 하신 종조님의 말씀을 좇아서 다시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성추행 등 자질 논란
5월 31일자로 총인직 사퇴

통리원장 추천권 갖는 총인
행정수반 위에 군림 가능해
종의회 추대 · 직선제안 논의

2개월 내 새 총인 선출해야
혜정 · 혜명 · 경정 정사 하마평

회정 정사는 공식적으로 총인직서 물러난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아들의 성추행 의혹, 자신의 폭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다만 그는 "진각종단의 발전을 위해 서원하고 정진해온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이 진언행자로서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종단을 이뤄 진각의 큰길을 이어주시길 서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회정 정사는 올해 초 진각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아들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함께 자신의 폭언 · 욕설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5월 29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1995년 폐부된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는 사라졌지만 동문들은 기금 모연 등을 진행했고, 25년만에 불교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재건하게 됐다. 사진은 창립법회에서 불교연구회 학생들과 전신인 불교학생회 졸업생 선배들이 밝게 웃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동문 후배사랑, 불교동아리 되살렸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25년 만에 재건

1995년 맥 끊긴 안타까움
졸업생 정기모임서 결의

5월 29일 '불연' 창립법회
마음공부, 명상 등 테마
35명 회원 모집해 재건

"대학교에 다닐 때 불교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비를 불심으로 극복했고, 학창시절 만난 법우들은 인생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후배들에게도 돌려주고자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후배님들을 위해 어떠한 것도 마다 않고 돕겠습니다."

졸업한 동문들이 힘을 모아 맥이 끊어졌던 불교학생회를 25년만에 복원해 눈길을 끈다. 화제의 대상은 서울교육대학 불교연구회(회장 박정인, 이하 불연)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는 5월 29일 인문관 세미나실에서 '불연'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불연의 전신은 1970년에 창립된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다. 서울교대 불교학생회는 한때 입회 회원이 100명을 넘기도 했지만 1995년 지도교수 정년퇴임과 함께 사라졌다. 불연이 다시금 생명을 찾게 된 원동력은 졸업생 선배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학내 불교동아리가 사라졌어도 졸업생들은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템플스테이나 사찰순례를 통해 유대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재학시절 활발한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던 조학규 前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이 초빙교수로 오며 원력이 하나로 모였다.

정성룡 불연 동문회장은 "동아리 재건을 목표로 기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학규 선배가 교수로 초빙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구덕회 교수도 인연이 되어 지도교수로 모셨다. 이후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창립추진위를 조직해 재건을 준비해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지도교수를 맡을 현직교수와 선배들의 기금 모연 등 외부 지원이 있었지만 정작 학생회 주체인 불자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 난관이었다.

졸업생들은 조학규 교수연구실에서 매주 회의를 하며 머리를 모았다. 이들은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교수연구실 앞에서 부스를 만들고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콘텐츠를 홍보했다. 동문과 불자 교수들의 열정은 통했다.

조학규 교수는 "처음에는 5명만 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5명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랜 공백 후에도 이처럼 학생들이 찾아온 건 기적"이라고 말했다.

'불연' 회장을 맡게 된 박정인 회장(3학년)은 "현재 회원 중 불자는 2명에 불과하지만 다들 관심이 높다"며 "교대는 방학기간 기숙생활을 많이 한다.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큰 힘이 된다.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선지식 법문 등 다양한 문화활동 등으로 학생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생회가 아닌 불교연구회로 새롭게 이름을 달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함께 힘을 모은 20여 졸업생들과 박유진 대불련 회장을 비롯한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원, 김경성 교대 총장 등이 함께 참여해 동아리 재건을 축하했다.

불교학생회 18기인 한자경, 원영식 선생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대학교서 불교동아리를 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스님들 법문 들으러 순례가고 공강시간에는 함께 모여 경전 공부에 머리를 맞댔던 것이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이라며 "동문들 모두 나라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불연' 은 2학기부터 정식 동아리방을 배정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6월 경 북한산 중흥사에서 템플스테이도 갖는다. 후배들을 위해 비용 일부도 선배들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도교수를 맡게 된 구덕회 교수는 "학창시절 가장 인기 있었던 동아리가 바로 불교학생회였다. 최근 불교동아리들이 재창립되는 곳이 늘고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졸업 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불교가 지닌 마음공부를 통해 아이들 마음도 함께 어우러 만지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호국보훈의 달, 불교계 호국행사는 A5 | 가야문화진흥원 학술대회 – S.R.바트 의장 기조강연 A7

